

2010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언어 영역 •

1	④	2	②	3	①	4	②	5	①
6	②	7	⑤	8	②	9	⑤	10	⑤
11	⑤	12	⑤	13	①	14	①	15	⑤
16	③	17	④	18	②	19	③	20	④
21	⑤	22	③	23	①	24	②	25	④
26	⑤	27	④	28	④	29	①	30	⑤
31	①	32	③	33	①	34	⑤	35	②
36	⑤	37	④	38	②	39	②	40	③
41	①	42	①	43	③	44	②	45	③
46	④	47	④	48	③	49	⑤	50	③

[듣 기]

〈1번〉 이제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
음에 답하십시오.

(효과음-경기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소리)

캐스터 : 계속해서 여기는 제24회 전국 쇼트트랙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 목
동 아이스링크입니다. 김 위원님, 방금
끝난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전은 아
주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해설자 : 예, 거의 동시에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
했습니다.

캐스터 : 이렇게 거의 동시에 여러 선수들이 결승
선에 들어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수들
의 기록을 측정하고 순위를 정하게 되나
요?

해설자 : 예, 이럴 때는 스케이트의 앞날을 기준으
로 하고 있습니다.

캐스터 : 아! 그렇군요. 가슴이나 머리, 무릎이 아
닌 스케이트의 날이라니 참 흥미롭군요.

해설자 : 예, 보통 육상선수들은 팔을 뒤로 뻗고
가슴을 쪽 내밀며 결승선을 통과하죠?
이는 가슴을 기준으로 결승선 통과 기록
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동계
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은
발을 높이 차올리며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스케이트의 앞쪽 날이
기록 측정의 기준이 되고, 당시 규정으로
는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쇼트트랙도 스피드 스케이팅
과 마찬가지로 스케이트의 앞날을 기준
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트트랙은
선수들 간의 신체 접촉이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스케이트 날을 높이 들 경우, 자
칫 선수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실격
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스케이트를 빙
판에 붙인 상태에서 그 앞날의 통과 시
간을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출제의도] 방송을 듣고 핵심 정보 파악하기

쇼트트랙의 결승선 통과 기록의 기준은 스케이트의
앞쪽 날이며 이때 스케이트 날은 빙판에 붙인 상태
여야 한다. 이는 쇼트트랙이 선수들 간의 신체 접촉
이 많은 경기이므로 결승선 통과 시 스케이트 날을
높이 들 경우, 자칫 선수들의 부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격으로 처리된다.

〈2번〉 이번에는 아빠와 딸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빠 : 음, 이게 무슨 냄새지? 맛있는 냄새가 나네?
데?

딸 : 네, 아빠, 엄마가 고등어 조림하고 계세요.
조금 있다가 진지 잡수시래요.

아빠 : 음, 그렇구나.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가을 고
등어는 정말 별미지.

딸 : 아빠, 그런데요, 저는 고등어하고 삼치하고
잘 구분이 안 돼요.

아빠 : 그래? 그럼, 우리 딸한테 사진을 좀 보여줘
야겠구나. 이리오렴.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보
자꾸나. 어디 보자. 고등어가 여기 있구나.
삼치는 여기 있구.

딸 : 아, 제가 보기엔 고등어의 눈이 삼치보단 좀
큰 것 같은데요?

아빠 : 그렇지? 몸 옆면에 있는 무늬도 좀 진한 편
이구, 자, 이왕 책을 폈으니 고등어에 대해
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딸 : 네, 아빠, 어? 여기 사진을 보니까 배 쪽과
등 쪽은 고깃살이 얇은 색인데 옆구리 쪽은
짙은 색이네요?

아빠 : 어, 그렇구나. 어디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
음, 여기 있구나, 색이 얇은 쪽은 백색근을
포함한 부분이고 짙은 쪽은 적색근을 포함한
부분이라는구나.

딸 : 백색근, 적색근요?

아빠 : 그래, 아빠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볼게. 백
색근은 산소의 양이 적고, 혈관이 잘 발달되
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백색근은 순간적으
로 큰 힘을 낼 수 있지만 연속적으로 운동하
면 쉽게 피로해진다. 반면, 적색근은 산소의
양이 많고 혈관이 잘 발달한 부분으로 장시
간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경우에 큰 힘을 발
휘하게 한다.

딸 : 아, 그렇군요. 백색근은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낼 때 사용하는 근육이고, 적색근은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이네요.

2.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 파악하기

고등어의 옆구리 쪽은 짙은 색이고, 색이 짙은 쪽은
적색근을 포함한 부분이라고 했으므로 고등어의 옆
구리 쪽에는 적색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④ 백
색근은 혈관이 잘 발달하지 않았고, 적색근은 혈관이
잘 발달한 부분이라고 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
한다. ⑤ 적색근은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일 때 사용한
다고 했으므로 지구력이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3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
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착한 세모 실험’ 인데요.
이 실험은 생후 10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그럼, 실험의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아기들에게 비디오 화면을 보여 줍니다. 비디
오 화면 속에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
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려고 하지만 동그란 몸 때
문에 자꾸만 굴러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세모가
나타납니다. 세모는 자꾸만 굴러 떨어지는 동그라
미를 밀어 올려주고 동그라미는 무사히 산꼭대기에
올라서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동그라미 하나
가 굴러 떨어지기를 반복하면서도 산 오르기를 시
도합니다. 가까스로 동그라미가 산 정상에 오르려
는 찰나, 갑자기 네모가 나타나서 동그라미를 밀어
뜨립니다. 동그라미는 결국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
고 맙니다.

이제 비디오를 끄고 아기가 앉아 있는 책상 위에
세모와 네모 모형을 올려놓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

는 엄마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자,
과연 아기는 어떤 모형을 잡을까요?

실험에 참여한 모든 아기들은 세모를 잡았습니다.
세모나 네모의 색깔을 바꾸어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해도 아기들이 선택한 것은 동그라미를 도와준 세
모 모형이었습니다.

3. [출제의도] 강연의 내용에 대한 적절한 반응 찾기

세모는 동그라미를 도와주는 행동을 하고 네모는 동
그라미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 아기들이 세모를 골
랐다는 것은 착한 행동을 한 세모를 더 선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도덕적 성
향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번~5번〉 이번에는 학생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
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 최근 자가용을 이용하여 등교하는 학생들
이 많은데, 이것은 학교에서 전면 금지해
야 합니다.

남학생 :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자가용을 이용
하여 등교하는 것은 학교에서 금지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필요나 상
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여학생 : 우리 학교 아침 등교 모습을 생각해 보세
요. 가뜰이나 교문 앞 도로는 좁은데 학생
들을 내려 주기 위해 교문 앞에 정차하는
자가용과 학교로 들어오려는 차가 뒤섞여,
학생들의 보행을 방해합니다. 학생들이 이
런 차량들을 피하려다 보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당연히 높죠. 학교 앞 교통사
고 발생률이 작년에 비해 15%나 증가했
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
다. 우리 학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남학생 : 물론, 저도 우리 학교 앞 도로가 등교 시
간에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
지만 자가용을 이용하여 등교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족
한 잠도 잘 수 있고, 아침밥도 먹을 수 있
어서 좋던데요. 그러다보면 건강에도 도움
이 되지 않을까요?

여학생 :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침에 조금 일찍 출
발하여 걸어서 등교하는 것이 더 좋죠. 저
는 자가용으로 등교하는 것은 다른 학생
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
요.

남학생 :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무조건 이기주의
라고 몰아붙일 일은 아니지요. 우리 반 친
구는 집이 멀어 학교까지 오는 버스 노선
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
게 해야 하죠?

여학생 :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약 80%가 도
보로 20분 이내의 거리에 거주한다는 학
교 신문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멀거나 버스 노선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은 소수일 겁니다.

남학생 : (불평하듯이) 비록 소수의 학생이라도 꼭
자가용을 타고 등교해야 하는 경우도 있
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가용을 타고
등교하는 문제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지,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4. [출제의도]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 파악하기

여학생은 ‘자가용을 이용한 등교’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등교 시간에 학교 교문 앞 도로에 여러 차량이 뒤섞여 보행을 방해하고 이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남학생은 ‘물론 저도 우리 학교 앞 도로가 등교 시간에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두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교 앞 도로에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매우 혼잡하다’이다. ①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의 수가 많다’는 두 토론자가 한 발언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진술이다. ③ ‘등교할 때 자가용의 이용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다’는 남학생의 발언 내용이고, 여학생과는 관련이 없는 진술이다. ④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걸어서 등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학생의 발언 내용이고, 남학생과는 관련이 없는 진술이다. ⑤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 활용에 유리하다’는 남학생의 발언과 관련이 있고, 여학생과는 관련이 없는 진술이다.

5. [출제의도] 토론자들의 말하기 특징 파악하기

여학생은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률이 작년에 비해 15%나 증가했다’는 기사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약 80%가 도보로 20분 이내에 거주한다’는 학교 신문의 통계 자료를 논거로 제시하며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학생은 ‘집이 멀어 학교까지 오는 버스 노선이 마땅치 않은 친구’와 ‘부족한 잠도 자고 아침밥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던’ 자신의 경험을 논거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② 여학생은 경제적 측면이 아닌, 다수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남학생은 교육적 측면이 아닌, 다소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③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감정적인 태도로 상대의 의견에 대응하고 있다. ④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직설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⑤ 여학생은 상대인 남학생에게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쓰 기]

6. [출제의도] 연상한 의미를 바탕으로 구체화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악보 기호 ‘늘임표’는 ‘두세 배 길게 늘어 연주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서 ‘연장’이라는 연상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고, 학습 방법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단원을 학습하거나, 심화 학습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학습해야 한다’는 구체화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①의 ‘도돌이표’는 ‘되풀이하여 연주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반복’을 연상할 수 있으며, 학습방법과 관련해서는 ‘학습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복습을 한다’를 도출할 수 있다. ③ ‘크레센도’는 ‘점점 강하게 연주하라’는 의미로 ‘강화’를 연상할 수 있으며, ‘학습의 수준이나 정도를 점차 높여간다’로 구체화할 수 있다. ④ ‘붙임줄’은 ‘높이가 같은 두 개의 음표를 이으라’는 의미로 ‘연계’를 연상할 수 있으며, ‘학습내용이 유사한 단원은 연관지어 학습한다’로 구체화할 수 있다. ⑤ ‘박자표’는 악보에서 박자를 나타내며 ‘규칙성’을 연상할 수 있으며, ‘계획표에 정한 대로 학습 시간과 양을 지킨다’로 구체화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하얀 눈이 내리는데’에서 감각적 표현으로 계절감이 드러나고, ‘환한 등대’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정말 감사했습니다’에서 감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① ‘푸른 우정’에서 감각적 표현은 사용되었으나 계절감이 드러나지 않았다. ② ‘호르는 물처럼’에서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었으나 감사의 마음과 감각적 표현에 따른 계절감은 드러나지 않았다. ③ ‘따사로운 햇살처럼’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감각적 표현으로 계절감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④ ‘눈 내린 창밖’에서 계절감이 표현되었고 감사의 마음은 드러나지만

비유적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8.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가)는 신입생 환영회 관련 사고를 보도하는 신문 기사이고, (나)는 신입생 환영회에 대한 신입생의 의식을 조사한 자료로, <만족도>는 신입생 환영회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개선되어야 할 점>은 신입생 환영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이다. (다)–1은 신입생 환영회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규제하는 학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터뷰 자료이며, (다)–2는 봉사활동 형식으로 진행된 신입생 환영회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인터뷰 자료이다. (나)의 <만족도>에서 신입생 환영회에 대한 높은 불만족 수치와 <개선되어야 할 점>의 여러 항목을 신입생 환영회의 개선 방향을 밝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개선되어야 할 점>의 항목 중 높은 수치를 보이는 ㄱ과 ㄴ은 선배들의 음주 문화와 강압적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신입생 환영회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의식과 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러므로 (나) 자료를 활용하여 신입생 환영회에 대한 선배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신입생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제시할 수는 없다. ④ (가)에는 술에 취한 선배들에게 기합을 받던 신입생이 다치는 사고가 제시되어 있고, (나)에는 지나친 음주 문화와 선배들의 강압적인 태도가 신입생 환영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와 (나)의 자료를 활용하여 선배들의 강압적 태도와 음주 문화가 신입생 환영회 관련 사고의 원인 중 하나임을 밝힐 수 있다. ⑤ (나)에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나친 음주 문화와 프로그램 부족이 높은 수치로 제시되어 있어, 신입생 환영회가 음주 위주의 문화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2에는 봉사활동으로 진행된 신입생 환영회의 호응도가 높고, 선후배간의 친목 도모에도 도움이 되었음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와 (다)–2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신입생 환영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신입생 환영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임을 제시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하기

‘물론’이라는 부사어와의 호응과 이어지는 뒷문장과 의 의미관계를 고려할 때 ‘일이겠지만’이 적절하다. ① ‘역경이 깊다’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많은 역경’을 이겨냈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술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앞 문장에서 언급한 내용과는 다른 생각을 담고 있으므로 ‘그러나’가 적절하다. ③ ‘앞장서다’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등산가보다’를 넣는 것이 적절하다. ④ 촬영 팀의 노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글 천제의 흐름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개요 수정 및 보완하기

제시된 <보기>는 노인 요양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쓰기 위한 개요이다. 이 글의 예상 독자가 정부 당국과 시설 담당자이므로 ⑤와 같이 결론 부분에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 촉구로 글을 끝맺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의 경우, 상위 항목이 ‘노인 요양 시설의 현황’이고, 본론 및 결론에서도 노인 요양 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단순히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보다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노인 요양 시설의 증가’가 현황으로서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②의 경우, 개선 방안이라 할 수 있는 ‘Ⅱ-1-다’의 항목과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Ⅱ-2-다’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으므로 문제점 또는 원인을 서술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일반적인 글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할 때 그 위치를 맞바꾸는 것

이 적절하다. ③의 경우, 정부 당국 및 요양 시설 담당자가 아닌 이용자의 공공의식을 다루고 있으므로 글의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기에 ‘Ⅱ-1-라’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의 경우, ‘Ⅱ-1-나’의 개선 방안으로 ‘Ⅱ-2-나’ 항목은 ‘요구 파악’에만 그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화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으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제시된 단어의 의미 탐구하기

㉠은 ‘뒤에서 보살피며 도와주는 일’, ㉡은 ‘뒤를 보살피며 옆에서 간섭부름을 하는 일’, ㉢은 ‘일이 끝난 뒤에 뒤끝을 정리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에는 ‘보살피다’의 의미가 없다. ① ㉠은 ‘일의 뒤끝을 말아서 처리함’으로 ‘마무리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③ ㉡은 ‘뒤에서 일을 보살피서 도와주는 일’이므로 ㉠과 달리 ‘돕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④ ㉢은 ‘일이 끝난 뒤에 뒤끝을 정리하는 일’이므로 ㉠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은 ‘뒤에서 일을 보살피서 도와주는 일’이므로 ㉠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

12. [출제의도] ‘목적적 조사’의 성립 형태 및 특성 이해하기

한 문장 안에 목적어가 겹쳐 나타나는 경우 목적격 조사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예) 선생님께서 책을 열 권을 주셨다. / 선생님께서 책 열 권을 주셨다. / 선생님께서 책을 열 권 주셨다. ① 목적격 조사 ‘을/를’이 모음 뒤에서는 ‘ㄹ’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② 목적격 조사의 자리에 보조사 ‘은/는, 도’가 쓰이기도 한다. ③ 목적격 조사와 보조사 ‘만, 까지’는 서로 어울려 쓰일 수 있다. ④ ‘나는 영수와 만났다’에서 ‘와’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부사격 조사 대신 목적격 조사인 ‘를’이 사용되기도 한다.

[시가 복합]

[13~18] 시가 복합

<출전> 한용운, 「꿈과 근심」

김종해, 「기다림」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13. [출제의도] 세 작품의 공통점 찾기

(가)의 ‘밤’과 ‘새벽’, (나)의 ‘날빛이 서창에 걸리고’와 ‘밤’, (다)의 ‘밤둥’ 등의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③ (가)에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화자의 구체적 행동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대상에 대한 원망의 마음은 (나)에만 나타난다.

14.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시구 분석하기

㉠의 ‘반도 못 가서 깨었고나’는 임과의 만남에 대한 의지를 기원이나 맹세의 언어로 표현했다기보다는, 임을 만나러 가는 꿈을 꾸다가 일찍 깨어버린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15.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 비교하기

㉡는 화자의 원망과 아픔이 승화된 사랑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은 화자의 외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④ ㉢은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만, ㉡는 화자가 갈등하는 원인이 아니다.

16.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비교 감상하기

(가)는 1, 2연의 ‘~기에 ~더니’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심화하고 있다. ① (가)와 <보기>의 ‘님에게도 꿈이 있다면’과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어든’에는 각각 상황에 대한 가정이 나타난다. ② (가)와 <보기>는 모두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7.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극락 왕생 별천지에 홀로 단꿈 꾸시나요’에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나타난다. ⑤ ‘바늘

끝에 뜨이는 / 아픈 사연 감추옵고’에서는 화자가 입을 기다리는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출제의도] 시상 전개 과정 이해하기

화자는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알기 위해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만 ‘구름과 안개’ 때문에 ‘일월(日月)’을 볼 수 없어 ‘막막한 심정’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차라리 ‘물가’로 가 뱃길을 알아보고자 하지만 ‘바람과 물결’ 때문에 뱃사공은 없고 ‘빈 배’만 걸려 있다(ㄱ). 화자는 ‘외로운 마음’에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지만 임의 소식은 알 길이 없다. 지친 화자는 집으로 돌아와 초가집 ‘찬 잠자리’에 누워 잠이 들고 꿈속에 그리운 입을 만나지만 ‘닭 울음소리’에 ‘꿈이 깨고’ 화자의 마음에는 ‘안타까움’만 가득하다(ㄴ).

[인 문]

[19 ~ 22] 인문 제제

<출전> 장근영, 「심리학 오디세이」

19.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과잉정당화 효과는 자기 내부로부터의 보상보다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보상과 관련이 있다. ① 성취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은 과잉정당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④ 과잉정당화 효과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인간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다.

20. [출제의도] 비판적 의문의 적절성 파악하기

과잉정당화 효과는 지나친 보상이 내적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것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보상이 지나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상의 지나침 여부는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① 과잉정당화 효과가 나타나는 실험은 여러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변형되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21. [출제의도] 글의 핵심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컴퓨터 게임을 즐기던 영수가 프로그래머가 되자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던 이유는 물질적 보상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① 컴퓨터 게임의 반복과 흥미와의 관계는 제시문을 통해서만 알 수 없다. ③ 게임에 대한 몰입과 게임에 대한 자신감과의 관계는 과잉정당화 효과로 설명할 수 없다. ④ 물질적 보상과 비물질적 보상이 함께 주어진다고 해서 과잉정당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2. [출제의도] 현상과 관련된 속담 파악하기

‘제사보다 젓밥에 정신이 있다’는 제사 자체보다는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잉정당화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는 한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이 그 집단 전체나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과 학]

[23 ~ 25] 과학 제제

<출전> B.E.짐머맨 & D.J.짐머맨,

「테마가 있는 20가지 과학 이야기」

23.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세부 정보 이해하기

2문단에 의하면 산발 유성은 일정한 방향이나 특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온다고 하였으므로 특정한 시기에 대기권으로 떨어진다는 진술은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 2문단에 의하면 유성우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유성체가 무

리 지어 있는 곳을 통과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쏟아지는 현상으로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유성우의 발생 시기는 사전 예측이 가능하다. ④ 4문단에 의하면 유성우의 이름은 복사점이 위치한 별자리의 이름을 따서 붙인다. 그러므로 복사점이 오리온 별자리에 있으면 오리온자리 유성우라 부른다.

24.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시각 자료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A와 B는 지구 궤도와 헬리해성의 궤도가 교차하는 지점이며, C는 헬리해성에 의해 만들어진 먼지 띠이다. C는 해성의 궤도에 흡여지며 수년 이상이 흘러도 그 위치는 궤도상에서 거의 변하지 않아, 지구가 공전하며 매년 먼지 띠가 있는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그 속의 먼지나 파편들이 유성우로 쏟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C가 지구 공전의 영향을 받아 그 위치가 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헬리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성우는 에타 물병자리 유성우와 오리온자리 유성우이므로, 만일 A에서 오리온자리 유성우가 발생한다면, B에서는 에타 물병자리 유성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④, ⑤ A와 B는 지구 궤도와 헬리해성 궤도의 교차점이다. 다시 말해 이 지점은 지구가 공전을 하며 헬리해성에 의해 만들어진 먼지 띠 C를 통과하는 지점으로, 이 지점에서 먼지 띠 속의 먼지나 파편들이 유성우로 쏟아지는 것이다. 즉, 지구가 A와 B를 통과할 때 C 안의 물질들이 유성우로 쏟아지게 된다. 또한 지구에서 이 유성우를 관측할 때에는 A와 B 지점에서 유성이 뻗어 나오는 듯이 보일 것이므로, 지구가 A와 B를 통과할 때 지구에서는 유성우의 복사점을 관측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하기

‘a’는 지구의 공전 방향 앞쪽이다. 이 위치에서는 지구의 공전과 운동 방향이 같은 유성체는 지구의 공전 속도보다 느린 경우, 지구와 충돌하여 지구에 유성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지구의 공전과 운동 방향이 반대인 유성체는 지구와 서로 부딪히는 방향에 있으므로, 속도에 관계없이 지구와 충돌하여 지구에 유성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현대소설]

[26 ~ 29] 현대소설 제제

<출전> 김문수, 「만취당」

26.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에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방식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극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① ‘아버지는 헐끗~많이 취한 모양이었다.’에서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② ‘푸른 술숲’과 같은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③ 서술자인 ‘나’가 사건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심리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④ 산에서 바라 본 만취당 주변의 풍경을 묘사하여 그 공간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27.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아버지는 만취당을 되찾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나는 무관심하기보다는 가슴 아파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를 가치관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선조 대대로 물려온 ‘만취당’을 되찾으려 했던 아버지의 삶을 알 수 있다. ② 아버지와 나의 대화에서 공장 폐수와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만취당이 농공 단지 개발로 사라지고 있는데 이를 산업화의 현실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아버지는 편액을 팔아서라도 아들을 뒷받침하려 하고 있으며,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현실과 타협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아들은 마음속으로 이를 따르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8. [출제의도] 말하기의 내용과 특징 파악하기

[A]의 발화자는 만취당을 되찾지 못하여 실망하고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으며 [B]의 발화자는 아들에게 어떻게 현실에서 처신해야 할지를 당부하고 있다. ① [B]는 과거의 문제점과는 상관없는 진술이다. ② [B]의 발화자는 동정심보다는 자기 나름의 근거를 들어 설득하고 있다. ③ [A]의 발화자는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⑤ [A]의 발화자는 상대방에게 동조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소재의 역할과 특징 파악하기

너럭바위에서 아버지가 만취당을 되찾지 못한 점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럭바위는 나보다는 아버지의 내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② 옛날 기와집인 만취당을 보면서 아버지는 선조 대대로 물려온 집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③ ‘그 사람’은 직장 내에서 ‘나’에게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한 인물로 ‘끝까지 싸워보는 거야.’에서 확인하듯 ‘나’는 그와 맞서려 하고 있다. ④ 아버지는 직장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는 아들을 위해 만취당을 사려고 준비한 농협이 적금통장을 주고 있다. 이로 보아 적금통장은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⑤ 푸른 술숲은 누렇게 시든 가을 일과 대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내가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언 어]

[30 ~ 31] 언어 제제

<출전> 최전승 외 3인, 「국어학의 이해」

30.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 파악하기

3문단에서 포용관계에 있는 단어의 짝은 문장을 구성할 때 함께 쓰이는 언어적 관계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하였다. ① 공유관계의 단어는 동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상호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고, ② 4문단에서 포용관계가 특징의 품사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하였다. ③ ‘사고’와 ‘사색’ 두 단어는 공유관계이다. ④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는 포용관계가 성립한다.

31. [출제의도]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예 찾기

‘던지다 : 손’은 어떤 행위와 그 행위의 실행에 사용되는 기관의 관계이며, ‘쓰다 : 연필’, ‘자르다 : 칼’은 어떤 행위와 그 행위의 실행에 사용되는 도구(재료)의 관계이다. ‘짓다 : 개, 흐르다 : 물, 피다 : 꽃’은 어떤 행위와 그 주체의 관계이다.

[사 회]

[32 ~ 35] 사회 제제

<출전> 김경환·김종석, 「맨큐의 경제학」

32. [출제의도] 글을 읽고 세부적인 내용 파악하기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혼합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①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키면 그 금액만큼 총수요가 증가할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승수효과가 나타난다는 내용이 두 번째 문단부터 네 번째 문단에 걸쳐 언급되어 있다. ② 승수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글 전체에서 언급하고 있다. ④ 첫 번째 문단에서 정부의 대응 방법을 언급하였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그 이유를 언급하였다.

33.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 파악하기

정부지출에 의해 발생하는 승수효과의 의미를 그 과

정을 중심으로 밝히고 있다. ② 정부지출에 따라 발생하는 승수효과를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 이론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③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④ 전문가의 견해를 언급하지 않았다. ⑤ 국외의 사례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34.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핵심 내용을 그래프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승수효과로 인해 총수요곡선이 정부지출액보다 큰 폭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총수요곡선은 ‘10억 원’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의 크기로 이동한다. ② 총수요가 증가하면 기업은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 ③ 세 번째 문단에서 정부지출로 인한 효과가 다른 부분으로 파급되어 총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한다고 언급하였다. ④ 국민들이 늘어난 소득을 지출하면 소비재를 생산하는 사람의 소득이 늘고, 이것이 다시 소비지출로 연결되어 총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이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 걸쳐 언급되었다.

35.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마지막 문단에서 승수효과의 크기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는 이유로 ‘사람들의 소비가 국내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수입품에 대해 지출이 늘어나면 승수효과는 정부가 예상한 크기보다 작아질 수 있다. 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③ 새로운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 국내 생산이 늘어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기 술]

[36 ~ 39] 기술 제제

<출전> 박광규, 「담수화 기술의 현황 및 기술개발 동향」

3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확인하기

6문단의 마지막 줄에 ‘각 증발실에서 다음 증발실로 해수가 이동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진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해수의 이동 속도 조절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담수의 속도 조절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① 1문단의 두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사이의 내용을 통해 ‘가장 오래된 담수화 방식이 증발법’임을 알 수 있다. ②의 경우 6문단의 세 번째 줄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담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진술이 있으므로 물음에 답할 수 있다. ③ 1문단의 ‘수증기를 응축시켜 담수를 얻는’ 증발식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진술이나, 3문단의 세 번째 줄의 ‘증발과 응축을 통해 담수를 얻는 기술이다’라는 진술이 있으므로 물음에 답할 수 있다. ④ 6문단의 네 번째 줄에 ‘첫 증발실을 통과한 이후에는 점차 해수의 온도가 낮아지므로’라는 진술을 토대로 물음에 답변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는 다단플래시 담수화 장치 구조도인데, 해수관(ㄱ)을 따라 해수가 유입되어 히터를 거친 후, ㄴ 부분에서 플래시 증발이 발생하고 증발된 담수는 ㄴ의 표면에서 응축되어 ㄷ에 의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증발 이후 남은 해수는 ㄱ을 따라 다음 증발실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④의 경우 4문단의 내용으로 볼 때, ㄴ은 ‘플래시 증발’이 발생하는 부분으로서, 갑자기 낮아진 압력에 액체의 끓는점 또한 낮아짐으로써 ‘응축’이 아닌 ‘증발’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ㄱ부분의 해수는 담수가 증발되기 이전의 상태이고 ㄴ부분의 해수는 플래시 증발이 이루어진 후의 해수이므로 ㄱ부분의 해수에 비해 ㄴ부분의 해수가 염분의 농도가 더 진하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② 3문단의 ‘해수관을 따라 이동하던 해수는 증발실 내부의 열의 의해 점차 온도가 상승한다’라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 ③ ㄷ의 경우 5문단에서 ‘이후 응축된 담수는 증발실 내부의 격리된 막을 통해 따로 모아 진다’라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 ⑤ 5문단에서 남은 해수는 다음 증발실로 이동한다는 진술이 있으며, 6문단에서는 ‘증발실 내부의 압력을 순차적으로 낮춘다’라는 진술이 있으므로 ㄱ의 해수는 더 낮은 압력의 증발실로 이동하게 된다.

38. [출제의도] 핵심 원리를 이해한 후, 생활 속의 사례에 적용하기

①은 액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갑자기 큰 폭으로 낮아지면 액체의 끓는점 또한 낮아진다는 진술이다.

②의 사례는 기압의 변화에 따른 끓는점의 변화라는 원리를 담고 있으므로 ㉠과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④에서 사이다 병의 마개를 열어 발생하는 기포는 기체가 액체에 용해되는 정도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물의 끓는점과는 다른 사례이다.

39. [출제의도] 글 속에 사용된 단어를 유사한 의미를 지닌 말로 바꾸었을 때의 적절성 판단하기

‘병렬식으로’의 경우 문맥적으로 ‘옆으로 나란히’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빈갈아가며’의 의미와는 다르다.

[고전소설]

[40 ~ 43] 고전 소설 제제

<출전> 작가 미상, 「숙향전」

40. [출제의도]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기

‘상서 부인’이 ‘하인들’을 힐문하여 들은 사실(‘선’과 ‘숙향’이 결혼함)을 ‘상서’에게 기별하였으므로 정보 제공자(ㄷ)에 해당하는 인물은 ‘상서 부인’이다. 그리고 이를 들은 ‘상서’가 ‘낙양 태수’에게 ‘숙향’을 잡아 죽이라는 기별을 하였으므로 명령자(ㄱ)에 해당하는 인물은 ‘상서’이다. 또한 ‘상서’의 말을 들은 ‘낙양 태수’가 ‘숙향’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명령 수행자(ㄴ)’에 해당하는 인물은 ‘태수’이다. 그리고 ‘태수’가 ‘숙향’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 할 때, ‘태수 부인’이 이를 잠시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므로 ‘조력자 I (ㄹ)’에 해당하는 인물은 ‘태수 부인’이다.

41. [출제의도] 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 내용 파악하기

이야기1의 주인공 I 인 ‘숙향’은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단순히 자신이 죄가 없음을 말하거나 ‘이선’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소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인공 I 은 스스로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명령 수행자인 ‘낙양 태수’는 조력자 I 인 ‘태수 부인’의 요청에 따라 ‘숙향’을 죽이라는 ‘상서’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숙향’을 감옥에 가두었다. ③ 정보 제공자인 ‘상서 부인’은 하인들을 힐문하여 얻은 정보를 명령자인 ‘상서’에게 전달하였는데, 글의 내용으로 보아 그 정보는 주인공 I 인 ‘숙향’과 주인공 II 인 ‘선’이 결혼했다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④ 이야기2에서 주인공 II 인 ‘선’이 ‘숙향’의 편지를 받고 낙양 옥중에 가 함께 죽고자 하였으나, 조력자 II 인 ‘고모’가 이를 만류하고, ‘상서 집 노복’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 ⑤ 이야기1에서 감옥에 갇힌 ‘숙향’의 상황을, 이야기2의 주인공 II 인 ‘선’과 조력자 II 인 ‘고모’에게 편지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청조’이다.

42.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이 드러나는 발화 파악하기

<보기>는 <숙향전>의 특징으로, 숙향의 삶의 과정이 인물의 발화를 통해 요약·제시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약·제시는 강독사에 의해 연행된다는 특징 때문에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인물의 발화를 통해 숙향의 지난 삶이 요약되어 제시되는 부분으로는 ㉠ ‘소녀는 다섯 살 때 피란 가던 중에 부모를 잃고 동서로 구걸하며 다니다가 할미 집에 의지하였는데’가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찾기

㉡는 옥졸이 옥에 갇힌 ‘숙향’에게 내일이면 죽을 것이니 불쌍하다고 말하는 부분으로, 여기서 ‘숙향’은 목숨이 매우 위태롭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방약무인(傍若無人)’은 적절하지 않다. ① ‘백척간두(百尺竿頭)’는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선 것처럼,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이므로 ‘숙향’의 상황에 적절하다. ② ‘풍전등화(風前燈火)’는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숙향’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④ ‘명재경각(命在頃刻)’은 ‘거의 죽게 되어 끝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을 의미하므로 ‘숙향’의 상황에 적절하다. ⑤ ‘누란지세(累卵之勢)’는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형세라는 뜻으로, 몹시 위태로운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숙향’의 상황에 적절하다.

[시나리오]

[44 ~46] 시나리오 제제

<출전> 이은성, 「집념」

44. [출제의도] 제시문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 추론하기

장쇠는 ‘서방님이 허준이 놈과 함께 그 마을에 갔다면 일이 이렇게 잘 되었겠습니까. 허준이처럼 낙방을 시다’에서 도지가 ‘과거’에 합격하여 첩지를 받은 일을 잘된 일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허준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5. [출제의도] <보기>로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물의 대사나 행위가 지닌 의미 이해하기

‘부당함’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는 있으나 반드시 불의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도지가 병자를 돌보기보다는 첩지라는 현실적 목적을 추구했던 일은 불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당함’으로 볼 수 있다. 유의태와 허준은 보편타당하고 긍정적인 가치인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46. [출제의도] 시나리오의 장르상 특징 이해하기

S#131에서 유의태는 의원으로서의 소임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좇았던 아들 도지의 행동을 일관된 태도로 질책하고 있으며, 이렇게 의원으로서의 신념을 저버린 아들에 대한 실망감은 단호한 어조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조 변화를 통해 유의태의 심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는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예 술]

[47~ 50] 예술 제제

<출전> 김지현, 「공공미술을 통한 도심 속 공공 공간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47.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위 글은 용어(‘공공미술’, ‘장소 속의 미술’, ‘장소 지정형 미술’)의 개념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① 전문가의 견해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이론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48. [출제의도] 중심 내용의 과정 이해하기

‘장소 지정형 미술’에서 ‘미술’ 작품은 공간의 맥을

살리는 매개물이며, 공간, 사용자 등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한다. ‘미술’ 작품이 공간의 중심이 된다고 보는 관점은 ‘장소 속의 미술’이다.

49. [출제의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해 반응하기

<보기>는 작가(작품을 선정, 설치한 의사 결정자)와 대중과의 공간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미술 작품이 철거된 사례이다. 이는 공공미술의 방향성을 시사해 주는 사례에 해당된다. <보기>에서 ‘시민들의 공간 사용을 불편하게 하였고 난해한 미학으로 시민들을 주눅 들게 하였다’고 한 내용으로 보아 작가가 ‘작품 창작 시 수용자를 고려하여 미학적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50.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은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을 이루는 기초’라는 의미이다. ㉢의 ‘바탕’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어떤 일을 한 차례 끝내는 동안을 세는 단위’, ㉡, ㉤ ‘그림, 글씨, 수(繡), 무늬 따위를 놓는 물체의 바닥’, ㉣ ‘타고난 성질이나 재질, 또는 체질’의 의미로 사용되었다.